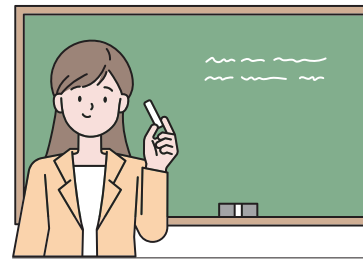


2022 활동수기집

나의 장학금생 일지





Contents

02

Part 1
교육 멘토링

16

Part 2
커리어 멘토링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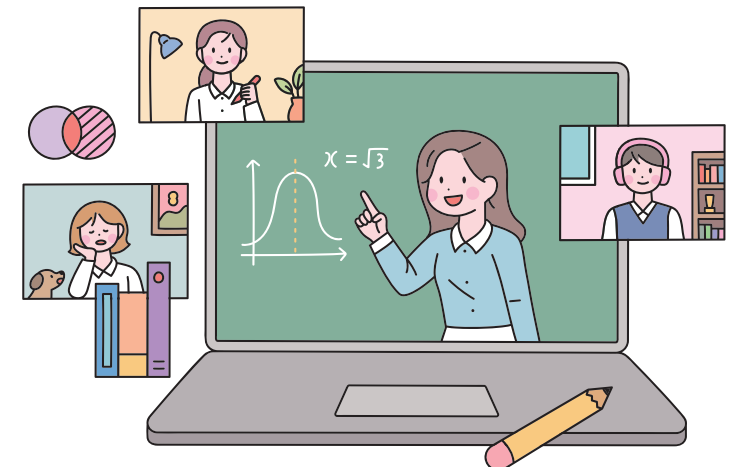
Part 3
나의 성장

34

Part 4
학습센터에 전하는
감사 한마디

40

Part 5
10기 후배 장학생에게
당부하는 말



펴낸곳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대구서구청, 부산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인하대학교, 사단법인 점프, 공동모금회

발행일

2023년 1월

기획/발행처

현대차그룹 대학생 교육봉사단 H-점프스쿨 사무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6길 5, 2층(송정동)
www.h-jumpschool.kr/
info@h-jumpschool.kr
02-2088-22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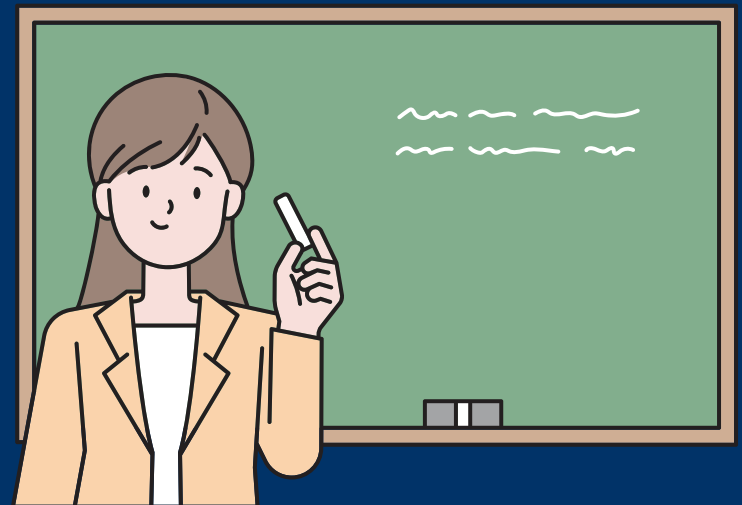
여는 글

현대차그룹 대학생 교육봉사단 H-점프스쿨은 미래세대인 청소년과 대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활동수기집 '나의 장학생 일지'에는 서로가 나누는 동시에 배웠던 2022년 H-점프스쿨 장학생의 성장기와
청소년이 장학생에게 전하는 말을 담았습니다. 397명의 대학생을 대표하는 장학생 64명의 청소년에게는 선생님이자,
동료 장학생에게는 친구였고, 임직원 멘토님들에게는 제자였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청소년- 대학생-임직원 멘토가 서로의 행복을 지지하는 울타리가 되어,
H-점프스쿨로 함께한 10개월의 역사를 더 소중히 간직하고자 '나의 장학생 일지'를 발간합니다.

Part 1

교육 멘토링

다양한 환경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기회와 정서적 안정을 전달하기 위한 9기 장학생들의 그간 히스토리를 소개합니다.



멘토링 활동 소개

청소년이 좋아하는 퀴즈를 적극 활용했어요!

하늘지역아동센터 김혜민 장학생



제가 담당한 청소년은 중학교 2학년 학생들로, 열심히 준비한 만큼 따라오려 노력하는 모습이 기특한 청소년들입니다. 1학기에는 학교별로 '수학, 영어' 수업을 진행하였고, 2학기에는 '국어, 수학, 과학'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과목 수업을 진행하며 각 과목에 맞는 수업방법을 찾자 노력했는데요. 국어는 문제풀이 그리고 수학은 개념 완성에 시간을 투자하였고, 시험기간을 대비해 각자의 눈높이에 맞는 문제를 선별하여 문제 푸는 감을 익힐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가장 반응이 좋았던 과학 수업의 경우에는 매주 PPT를 만들어 지난 수업을 복습하며 개념 빈칸 채우기나 OX 퀴즈 형식으로 복습을 진행하고, 수업 중간에도 퀴즈를 진행하며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또 시험기간을 맞이해 학교 대항으로 과학 퀴즈대결을 진행하였는데, 아이들의 열정에 수업을 진행하면서 깜짝 놀랐던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교과목지도 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다양한 문화활동에 함께했어요.

가온지역아동센터 박소현 장학생



제가 담당한 청소년은 미술을 좋아하는 초등학교 6학년으로 주 3회, 2시간씩 멘토링을 진행하였습니다. 멘토링 활동은 평소에는 영어와 수학 공부를 하고, 달에 2-3회는 다양한 문화활동을 했는데요. 날씨가 따뜻할 때는 센터 밖에 나가 서점에 방문하여 함께 책을 구경하기도 하고, 롤러스케이트장을 다녀오거나 카페에 방문하여 맛있는 와플을 먹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재학 중인 인하대학교 탐방을 하고, 학교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왔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나서 부터는 청소년이 좋아하는 그림그리기나 종이접기, 스쿼시북 만들기 등 다양한 미술 활동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할로윈 초콜릿 만들기 등 센터 내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베이킹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렇게 10개월 동안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해 교과목지도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정서지도도 함께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알려줬어요!

춘천반석지역아동센터 양예진 장학생



제가 활동했던 학습센터에는 총 23명의 청소년들로,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다양한 학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주로 학습 멘토링과 예체능 수업(리코더 수업과 배드민턴 수업), 그리고 외부 자전거 수업에 보조 선생님이로 참여했습니다! 리코더 수업은 처음에 음악 이론 공부를 한 후 난이도를 고려하여 악보를 보며 리코더를 연주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배드민턴 수업은 초반 라켓을 잡는 법부터 제자리에서 셔틀콕을 다루는 연습을 하고, 최종적으로 셔틀콕을 주고받는 가벼운 랠리를 할 수 있도록 수업을 했습니다. 자전거 수업에서는 자전거 타는 것에 두려움을 가진 청소년들을 도와주고 브레이크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외에도 청소년이 풀어야 할 학습지를 프린트해서 풀 문제를 채점하고 모르는 문제를 설명하는 학습멘토링도 했는데 학습멘토링 음악, 체육 활동을 번갈아가면서 활동했습니다.

4명의 청소년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을 진행했어요.

반석지역아동센터 강나에 장학생



저희 반은 원래 중학교 2학년 청소년 두 명이 있는 반입니다. 한 청소년은 하루종일 종달새처럼 조조조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 하는 아주 밝은 성격이에요. 다른 한 청소년은 조곤조곤하게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친구들을 휘어잡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른 반짝반짝한 눈빛의 초등학교 청소년도 매일 제 수업에 놀러오고, 다른 호기심 많은 중학생 청소년도 매일 놀러오면서 어느 순간 네 명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반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던 활동은 토론이었습니다. 관심을 갖는 사회 분야를 선정하고, 조사한 다음 함께 동그략게 모여 열띤 토론을 나눴습니다. 마이크 역할을 하는 물병을 든 사람만 발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발표가 끝날 때 즈음에는 물병이 찌그러져 있어서 참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시험이 끝났는데 놀러 가고 싶은 곳이 있냐는 질문에 모두가 바다라고 외쳐서 해변에 놀러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차타고 5분도 채 걸리지 않을 정도로 가까운 곳에 바다가 있는데, 다들 오랜 시간동안 바다에 가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 모래사장서 뛰어 놀고, 밤에는 불꽃놀이를 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눈빛들을 보며 저도 너무나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재밌는 수업을 위해 '소설에서 경제의 보물찾기' 기획까지 해봤어요!

희망샘지역아동센터 오유진 장학생



저는 중학교 2,3학년 멘티들의 중간, 기말고사 내신대비를 맡았고, 국어 교과서에 나온 문학작품 위주로 학습지도를 했습니다. 학기 동안에는 학습지도를 했지만 방학마저 너무 학습에 집중하면 지칠 것 같아 고민을 많이했고, 청소년들에게 재밌을 수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제 전공을 살려 인문학과 경영/경제학을 연결시켜 소설에서 경제학의 원리를 찾아보는 수업을 준비했는데요. 국어 수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일상생활, 사회과학, 대중문화 등에 스며있는 경제학의 원리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 '소설에서 경제의 보물찾기'라는 제목으로 총 6작품을 다뤘습니다. 멘티는 시험 대비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흥미로워했고 영상 자료들을 활용해서 그런지 집중도도 높아 저와 청소년 멘티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수업이었습니다.

지루한 멘토링이 아닌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멘토링을 준비했어요.

좋은사람들지역아동센터 이세정 장학생

제가 10여개월 동안 담당한 청소년 친구들은 초등학교 3~4학년 청소년들이고 주로 영어 과목 멘토링을 했습니다. 연령대는 비슷하지만 영어 기본기와 실력은 제각각이라 수준별로 그룹을 지어 영어 멘토링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소 기본기가 부족한 친구들은 영어 알파벳과 파닉스(소리 기호)부터 차근차근 진행하였고 단어와 문장 구조를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는 친구들은 센터에서 준비해주신 교재를 바탕으로 심화 단어와 문장 및 문법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아무래도 초등학생들이라보니 영어를 놀이처럼 학습할 수 있도록 팝송, 영어 단어 퀴즈, 영어 빙고, 영어 그림퀴즈, 영어 상황극 문장 등 다채로운 활동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다행히도 아이들이 좋은 반응을 보여주어 지루하기만 한 멘토링이 아닌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멘토링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H-점프스쿨에서 쌓아간 추억들

청소년과 함께하는 대학탐방

갈현지역아동센터 진건호 장학생

가장 큰 추억이라면, 청소년 그리고 동료 장학생과 함께 떠난 대학탐방활동이 떠오르는데요. 학습센터가 아닌 외부에서 청소년들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활동 계획부터 철저한 준비를 했었습니다. 청소년들의 스케줄을 확인하고 어느 장소에서 어떤 목적을 위해 어떤 활동을 진행하겠다! 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 보다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이 있었고, 활동을 진행할 때에는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발생해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활동이 끝난 이후 "선생님 대학탐방 너무 재밌었어요!", "또 가면 안되나요?" 등의 반응을 보였을 때, 그 순간 정말 부듯했습니다.



여름방학캠프, 가을운동회에 함께하며 추억 저장하기

오에스지역아동센터 임해리 장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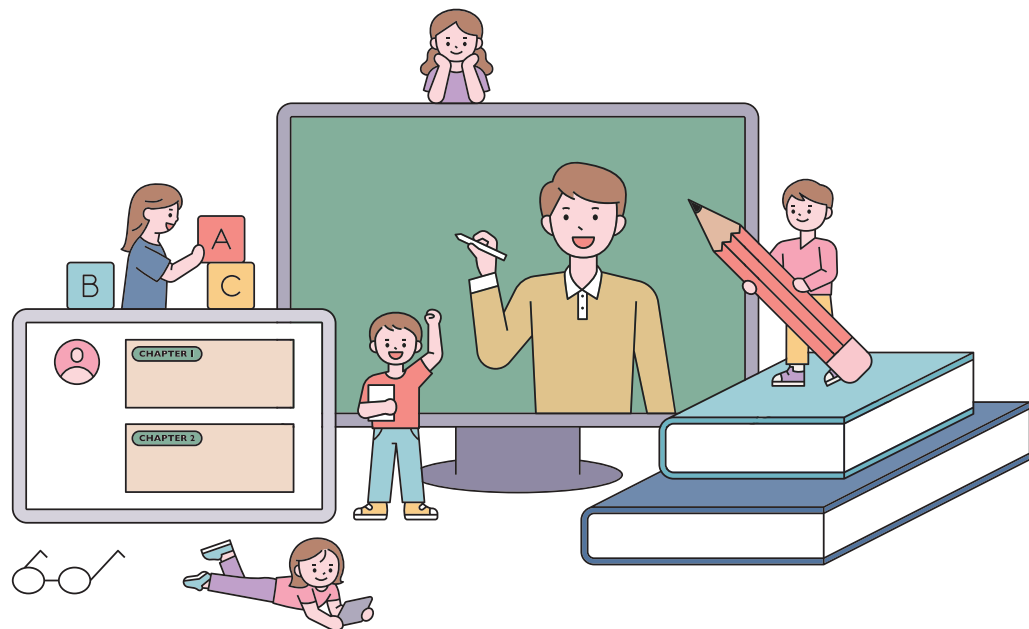
학습센터에서 여름방학캠프로 강원도 영월에 갔던 것과 가을운동회가 기억에 남아요. 영월 캠프에서는 서바이벌 총 게임, 아이들의 댄스에 맞춰서 노래 부르기, 추억 영상과 사진 촬영 후 학습센터 아이들과 함께 보기 등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청소년과 추억을 쌓을 수 있었고, 가을 운동회 때는 2인 3각 달리기 등을 청소년과 하면서 정말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청소년들과 외부활동하며 함께 했던 순간들이 모두 저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잊지 못할 다사랑 여름캠프

다사랑아동복지센터 한수진 장학생

활동 하루하루가 모두 소중한 추억이었지만, 특히 다사랑 여름캠프는 정말 잊지 못 할 것 같습니다.
다사랑 여름캠프는 우리 장학생들이 다사랑 청소년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고자 생일파티준비부터 레크레이션 준비까지 정성과 노력을 가득 담아 준비했던 활동인데요. 처음 해보는 것들이었기에 매우 떨렸지만 그만큼 청소년들이 좋아하길 바라며 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런 저희의 노력을 알아주듯 그 날은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의 행복한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또한 준비한 행사를 모두 마친 후 센터 선생님들께서 저희를 향해 이렇게까지 재미있을 줄 몰랐다고 정말 노력 많이 했다면 극찬을 해주셨을 때, 그 간의 노력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글쓰기 : 장학생과 아이들 모두 함께

라온지역아동센터 김혜진 장학생



특별한 추억을 쌓고 싶어 지난 여름에 청소년들과 함께 동화책을 제작하는 활동을 기획하였습니다. 저희가 만든 동화책은 아이들이 직접 동화책 내용을 만들고, 아이들이 그린 그림으로 캐릭터를 만든 것입니다. 동화책을 제작하면서 센터에 갈때마다 아이들이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내용을 만들고, 캐릭터를 만든 동화책을 전달해줄 때, 행복해지는 모습은 잊을 수가 없는 거 같습니다. 동화책 제작 후에는 센터 아이들에게 나누어주고 남은 책들을 다른 지역 아동센터에 기부함으로써 아이들이 만든 동화책을 널리 알리고, 아이들에게도 나눔의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청소년과 함께 본 아동권리영화제

꿈마을지역아동센터 남궁승아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주최하는 아동권리영화제에 함께 초대받아서 울산지역 시사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단편영화를 3개 관람한 후에 씨네아동토크까지 참여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독립영화들이라 청소년들이 집중을 못할까 걱정했는데 청소년들이 생각외로 훨씬 몰입감있게 봐서 기뻐했습니다. 아동권리영화제가 끝난 이후에 청소년들과 식당에서 함께 저녁도 먹고 귀가하였습니다.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첫 야외활동이어서 개인적으로 인상깊었고 영화를 보고난 후에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청소년들의 생각을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청소년들과 함께 센터가 아닌 다른 곳에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청소년 활동 수기

H-점프스쿨 장학생은 나에게 [] 이다!



Q. H-점프스쿨 장학생은 나에게 [편안한 마음을 제공해주시는 분]이다

선생님과 만나면 공부와 자기소개를 준비하는 시간이 힘들지 않았다. 혼자 끄덕 앓았던 부분이 해결이 되고 혼자 고민하고 힘든 나의 속사정은 한결 나아지게 된다. 그렇게 같이 준비하고 노력하다가 결국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 속 선생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나의 목소리는 즐거워하는 것이 느껴지기도 했다. 분명 하기 싫을 수 있는 수업시간을 기다리게 되고, 준비하는 그 과정이 힘들기 만한 면접 준비를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린이 것 같다.
- 사단법인경기글로벌센터

Q. H-점프스쿨 장학생은 나에게 [윗집 언니]다!

어릴 적 놀이터에서 놀다 보면 주변의 다른 언니나 동생들이 "안녕 너 몇 살이야?"라고 물어 오며 금방 친해졌던 기억이 있는데, 장학생과도 그런 느낌으로 편하게 금방 친해져서 윗집 언니 같아요. 장난도 많이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동안 감사했어요!
- 중계종합사회복지관

Q. H-점프스쿨 장학생은 나에게 [꿈]이다!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 영어가 어렵고 생소하기만 했는데요 선생님을 만나면서 저에게 꿈이 생겼습니다. 제 꿈을 위해 영어가 꼭 필요하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 그린리버지역아동센터

Q. H-점프스쿨 장학생은 나에게 [속마음을 잘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다!

선생님과 별별 이야기를 다 하는데요, 대화하다 보면 편해서 동갑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털어놓기 힘든 이야기를 저도 모르게 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잘 들어주시고 공감을 잘 해주셔서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친구들한테 털어놓으면, 언젠간 내 이야기를 또 다른 친구에게 전달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불안감이 있는데, 선생님한테 말하면 그런 걱정이 없어서 더 편한 것 같아요. 저랑 10살 차이 나는데, 세대 차이가 날 때도 있지만(농담), 그래도 많이 이해해주시고 장난도 많이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동안 감사했어요!
- 중계종합사회복지관

Q. H-점프스쿨 장학생은 나에게 [생명의 은인]이다!

제가 영어를 못했는데 장학생 선생님이랑 하면서 영어실력이 늘어서..
- 그린리버지역아동센터

Q. H-점프스쿨 장학생은 나에게 [명품/ 인생 강화재료]이다!

H-점프스쿨 장학생은 나에게 [명품]이다!
비싼 명품들처럼 값어치가 큰 소중한 선생님이였다.

H-점프스쿨 장학생은 나에게 [인생 강화재료]다!
제 성공에 한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강화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실패가 없는 강화재료인 선생님이 제 강화를 도와주셨습니다.
- 하늘지역아동센터

Q. H-점프스쿨 장학생은 나에게 [길잡이]이다!

내가 더 나은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항상 진심으로 따뜻하게 나의 꿈을 응원해주시기 때문이다.
- 은광지역아동센터

Q. H-점프스쿨 장학생은 나에게 [백과사전]이다!

왜냐하면 내가 궁금한 것들을 잘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 가온지역아동센터

Q. H-점프스쿨 장학생은 나에게 [친구/가장 편한 선생님]이다!

H-점프스쿨 선생님은 나에게 [친구]이다! 처음 멘토링을 시작할 때 친구처럼 편하고 재미있는 선생님이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 저는 공부를 잘 가르쳐주고 모르는 걸 화내지 않고 다시 설명해 주는 것이 친구라 생각하는데 선생님이 실제로도 그렇게 가르쳐주시고 편해서 H-점프스쿨 선생님은 친구 같다고 생각합니다.

H-점프스쿨 선생님은 나에게 [가장 편한 선생님]이다. 저는 제 말을 잘 들어주고 친구처럼 대해주는 사람이 편하게 느껴지는데 선생님은 저희 말에 항상 귀 기울여주시고 친구처럼 편하게 해주셔서 말 잘 들어주는 친구 느낌이라 가장 편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 가온지역아동센터

Q. H-점프스쿨 장학생은 나에게 [탄산음료]이다!

문제가 잘 안풀리고 고민이 있을 때 도와주면서 속이 시원하게 풀어주는 소중한 존재이다.
- 해피업지역아동센터

Q. H-점프스쿨 장학생은 나에게 [도우미]이다!

제가 H-점프스쿨을 하며 많은 도움을 얻고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 공립벨엘지역아동센터

Q. H-점프스쿨 장학생은 나에게 [연필]이다!

맨날 센터에 오시면 공부하라고 하신다.
- 춘천벨엘지역아동센터

Q. H-점프스쿨 장학생은 나에게 [행복]이다!

스스로 학습하는 것보다 더 쉽기 때문입니다.
- 깨비지역아동센터

Q. H-점프스쿨 장학생은 나에게 [친구같은 선생님]이다!

저희의 마음을 잘 알아주시고 잘 놀아주시고 1년동안 같이 보내다보니까 친구같았습니다.
- 달팽이지역아동센터

Q. H-점프스쿨 장학생은 나에게 [행복]이다!

H-점프스쿨 장학생은 항상 얘기도 잘 들어주고 잘 웃어요! 그리고 너무 착하고 재미있고 예뻐요!
- 다사랑아동복지센터

Q. H-점프스쿨 장학생은 나에게 [롤모델]이다!

왜냐하면 나도 장학생 선생님들처럼 되고 싶기 때문이다.
- 사랑받는지역아동센터

Q. H-점프스쿨 장학생은 나에게 [멋진 선생님]이다!

항상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시고, 좋은 팁을 알려주신다.
- 사랑받는지역아동센터

Q. H-점프스쿨 장학생은 나에게 [해설가]다!

나에게 문제 푸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때문이다.
- 사랑받는지역아동센터

Q. H-점프스쿨 장학생은 나에게 [비타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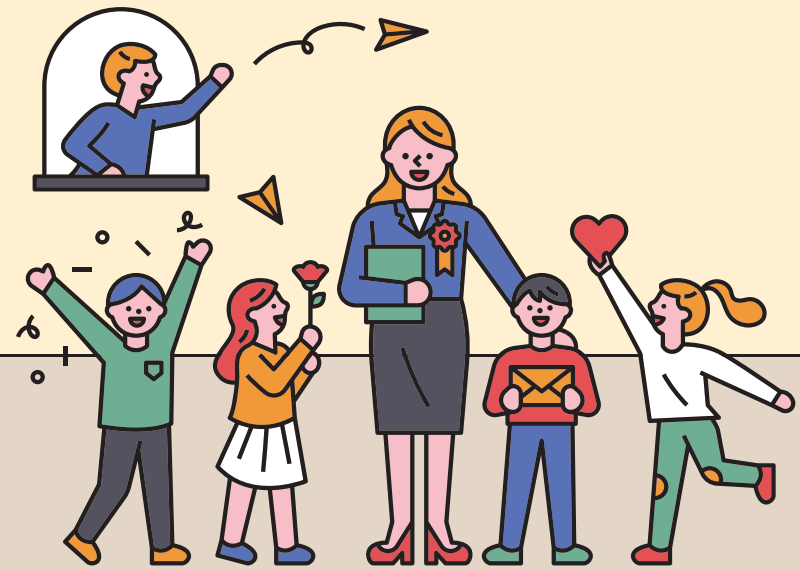
왜냐하면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이다.
- 사랑받는지역아동센터

Q. H-점프스쿨 장학생은 나에게 [좋은 말]이다!

항상 나에게 필요하고 좋은 말을 해주기 때문이다..
- 사랑받는지역아동센터

Q. H-점프스쿨 장학생은 나에게 [최고]다!

나와 항상 잘 놀아주기 때문이다..
- 사랑받는지역아동센터



Q. H-점프스쿨 장학생은 나에게 [친구같은 선생님]이다!

저희의 마음을 잘 알아주시고 잘 놀아주시고 1년동안 같이 보내다보니깐 친구같았습니다
- 재반지역아동센터

Q. H-점프스쿨 장학생은 나에게 [소화기]다!

왜냐하면 제 고민이나 모르는 것을 잘 도와주시고, 고민을 사그라들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 명정지역아동센터

Q. H-점프스쿨 장학생은 나에게 [간부]다!

좋은 선생님이고 친한 선생님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겐 너무 친해졌기 때문에 간부라고 적었습니다.
- 성심지역아동센터

Q. H-점프스쿨 장학생은 나에게 [선배]다!

힘들 때 고민도 들어주고 공부도 압박감 있게 가르쳐 주시는게 아니라 재밌고 편안하게 친구 같은 선배처럼 가르쳐 주셔서 나에게는 선생님이 아니라 선배 같았다.
- 재반지역아동센터

Q. H-점프스쿨 장학생은 나에게 [은인]이다!

선생님 덕분에 공부에 더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또 고민이 있으면 상담도 해주셨다.
- 명정지역아동센터

Q. H-점프스쿨 장학생은 나에게 [베스트프렌드]다!

이때까지 만난 선생님들 중에 가장 코드가 잘 맞고 유익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셔서 멘토링 시간이 즐거웠어요. 선생님이 저처럼 자유로운 성격이고 장난기도 많고 착하셔서 처음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명륜지역아동센터

Q. H-점프스쿨 장학생은 나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다!

젤리,과자도 주시고, 우산도 주시고, 도움도 주셨기 때문이다.
-솔로몬지역아동센터



Q. H-점프스쿨 장학생은 나에게 [가장 존경하는 친구]이다!

선생님께서 항상 저희 장난도 다 받아주시고 정말 친구같이 대해주셔서 가장 존경하는 친구라고 이야기 하고싶다.
- 호계느티나무지역아동센터

Q. H-점프스쿨 장학생은 나에게 [바다의 보물]이다!

왜냐하면 바다의 보물처럼 소중한해서이다.
- 호계느티나무지역아동센터

Q. H-점프스쿨 장학생은 나에게 [친구]다!

왜냐하면 웃는 얼굴, 밝은 목소리로 말은 걸고 고민을 잘 들어주기 때문이다.
- 호계느티나무지역아동센터

Q. H-점프스쿨 장학생은 나에게 [리플 모아 래산이라는 속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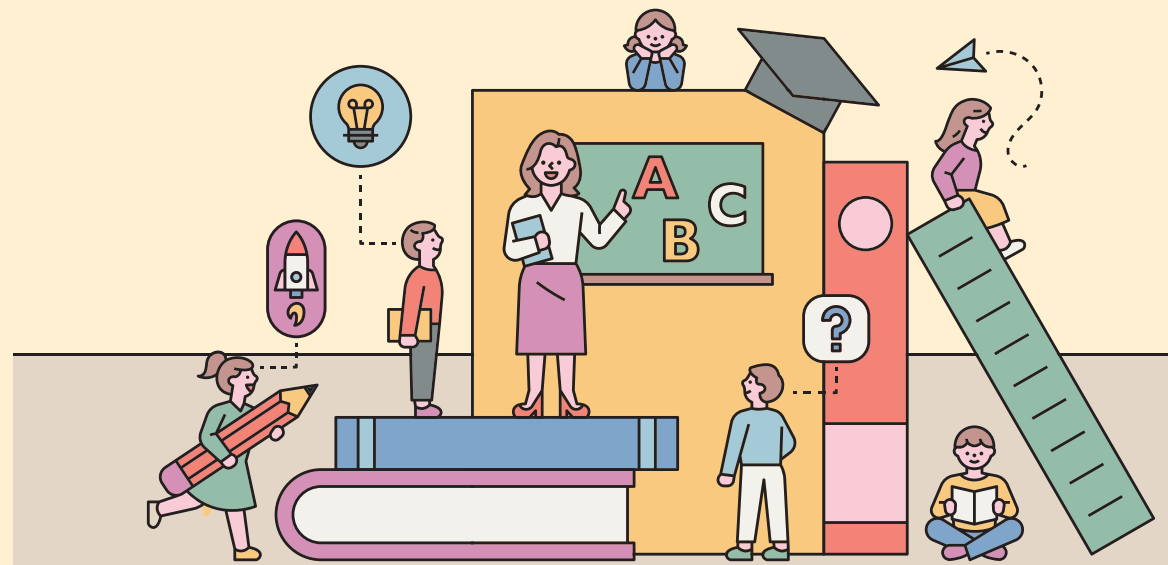
왜냐하면 같이 수업했던 내용이 차례차례 머릿속에 쌓여가면서 시험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 착한지역아동센터

Q. H-점프스쿨 장학생은 나에게 [친구 같은 존재]이다!

친구같은존재! 매일 게임도 함께 하고 마피아게임을 하니 친구같이 편안했어요!
- 디딤돌지역아동센터

Q. H-점프스쿨 장학생은 나에게 [언니, 누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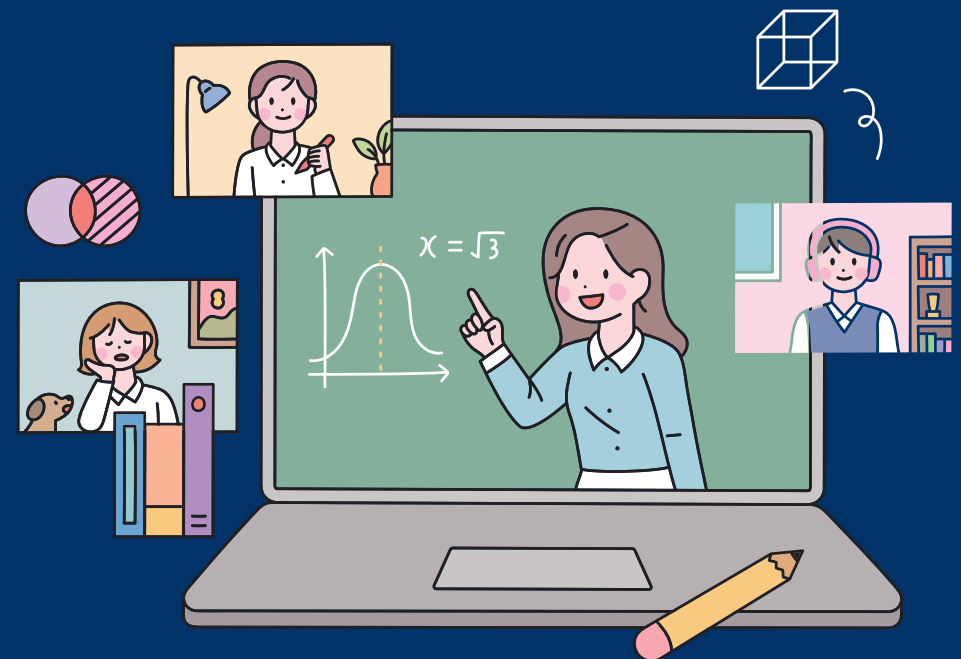
가족 같은 분위기로 수업을 진행하는 점이 이유입니다!
- 디딤돌지역아동센터



Part 2

커리어멘토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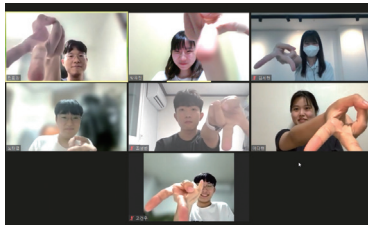
HMG 임직원 멘토와 사회인 멘토가 함께하는 커리어 멘토링!
커리어 멘토링을 통해 장학생은 어떤 걸 배웠을까요?



같은 고민을 하는 동료장학생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방황이 아닌 건강한 시행착오로!

지역아동센터정말잘돼 김세현 장학생



저는 소그룹 멘토링을 많이 들은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멘토링을 통해 정말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멘토님들은 제가 원하는 직종에서 현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조언들을 들을 수 있었고, 평소에 풀지 못했던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비슷한 꿈을 가지고 있는 다른 장학생들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들으면서 나도 더 많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멘토님들의 말씀도 너무 좋았지만 같이 멘토링을 듣는 다른 장학생들을 통해 배울점은 배우고 선의의 경쟁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앞으로 내가 훨씬 더 노력해야겠구나' 안될 것 같다고 포기하지 말고 일단 하고보자 라는 생각이 저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착한지역아동센터 송하늘



저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한 방향' 소그룹 멘토링에서 멘토님이 해주신 얘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진로에 대한 확신도 없고, 많은 분야를 좋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를 보고 주변에서는 "방향 그만하고 열린 길을 찾아, 한 우물만 파라."라고 하지만, 멘토님은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한 방향을 낭비라고 생각 말고 건강한 시행착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방향은 좋은 것이고, 고민하는 사람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라며 용기를 주셨습니다. 소그룹 멘토링 이후, 마음속 불안했던 것들이 눈 녹듯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커리어 멘토링으로 인연이 되어 다함께 백패킹까지

취업정보와 체력,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던 소그룹 멘토링

우리지역아동센터 장현지



소그룹 멘토링이 주기적으로 열려서 제가 원하는 멘토링을 많이 선택해서 들었어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멘토링은 김명수 멘토님의 여행 멘토링이었어요. 온라인 멘토링이었는데 어떻게 여행 계획이 기획되어 멘토링을 들었던 친구들과 멘토님과 함께 인천 덕적도-소야도로 백패킹을 함께 갔답니다. 그곳에서 혼자서 밥을 짓고 텐트를 치고 걸어나다면서 자연을 바라봤던 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리고 멘토님께서 멘티 3명을 데리고 가는 것이 힘들기도 했고 어려운 점들이 많았어요. 특히나 섬이라서 차도 없고 버스도 많이 안와서 한시간 넘게 걸어가는 거리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힘내자! 할 수 있다라며 긍정적으로 생각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나도 저런 어른이 되자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기억에 남는 여행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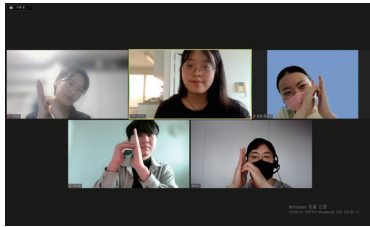
근화지역아동센터 남승재



저는 13번의 소그룹 멘토링 및 살롱드점프에 참여했습니다. 멘토님과 테니스를 치면서 진행했던 멘토링과 서울 한복판에서 했던 클래식 감상 멘토링은 단순히 진로설계 뿐 아니라 교양수업으로써 큰 가치가 있었습니다. 살롱드점프는 다른 센터, 지역에서 활동하는 장학생들과 교류하면서 정보를 얻어 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고 현직자 분들과의 멘토링은 저의 진로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어 하나하나 모두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막연했던 미래가 도전할 수 있는 미래로 바뀌었습니다

가은지역아동센터 이채린



살롱드 점프를 통해 타 지역 장학생들과도 소통을 하고 취업, 진로, 멘토링에 관해 많은 정보도 얻었습니다. 소그룹 멘토링을 통해서도 관심 있는 직무의 실무와 어떤 스펙이 도움이 많이 되는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두 활동을 통해 향후 제 미래와 진로에 있어 방향성을 알게 되었고 구체적으로 제가 원하는 직무를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어 막연했던 미래에 대한 도전이 좀 더 구체화되는 성장을 이뤘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세상에 겁먹지 말자

춘천반석지역아동센터 추성민



저는 소그룹 멘토링과 살롱드 점프를 통해 세상에 너무 겁먹지 말자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동안은 친구들이나 학교 선배배들을 주로 만났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멘토링을 통해 너무나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고, 멘토님들도 고난을 겪었고 극복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무슨 일에는 고난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은 없고, 어쨌든 이 고난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된 멘토링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물안에서 우물 밖으로

은광지역아동센터 이기화



예술계열이었던 저는 사실 다른 계열의 이야기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H-점프스쿨 멘토링을 통해 제 경험을 토대로 '직무'적인 선택이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고 앞으로 진로와 관련된 선택에서 든든한 버팀목 같은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도를 통해 실패해도 결국은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성공할 것이라 믿음을 얻을 수 있었는데, 특히 소그룹 멘토링에서 만났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한 김성현멘토님과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 충분히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기까지 방향하고 있는 지금 나 자신은 잘못되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그 여행으로 인해 나는 더 넓은 시야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 그리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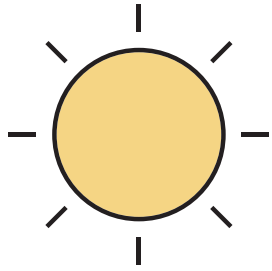
너는 충분히 방향하며 오히려 더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 것. 이 소그룹 멘토링을 통해, 1학기때 저는 학교에서 특히 많이 지쳐있었던 심신을 친구들과 강릉 여행을 떠나며, 마지막 여행에서 하루는 김성현멘토님께서 계시는 삼척으로 놀러가 직접 뱃고 이야기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용기를 통해 신청했었던 소그룹멘토링에서의 경험은 '말을 걸어보는 용기'와 더불어 또 내가 모르는 세계에서 사는 이와 이야기를 나누며 나는 성장할 수 있더라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관심이 가는 사람과 용기내어 말을 걸어보고 이야기를 나누어보는 것, 그만큼 귀한 시간이 없더라란 생각이 듭니다.)

Part 3

나의 성장

함께한 동료장학생 그리고 10개월이라는 긴 멘토링 활동을 통해 장학생은 어떤 걸 느끼고 배웠을까요? 더 큰 비전과 희망으로 채운 그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우리는 춘천지역아동센터 어벤져스!

춘천지역아동센터 최선아 장학생



저희 센터 동료 장학생들은 제가 다른 대외활동에서 만난 사람들과 비교해도 정말 멋진 사람들 뿐입니다. 저희 대표 장학생인 민수샘을 보면서 어떻게 리더십인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성적이면서도 따뜻하게 대하는 민수샘의 모습을 보며 인간관계에 대해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위로와 응원을 보내준 두부같은 다해샘을 보면서 남을 편안하게 해주는 대화법과 올바른 생각을 하는 법을 배웠으며, 맑은 눈 소유자 상현샘을 보며 어떻게 삶을 계획하며 자신을 삶의 1순위로 생각하는 방법들, 그리고 배려왕 도훈샘을 보며 남을 배려하는 방법, 활기 넘치는 태희샘을 보며 긍정적인 에너지의 힘을 배웠습니다. 정말 한명한명 너무 멋진 사람들이 있었고 저도 멋진 동료장학생들에게 자극을 받아 저를 더 발전시키려고 노력했던거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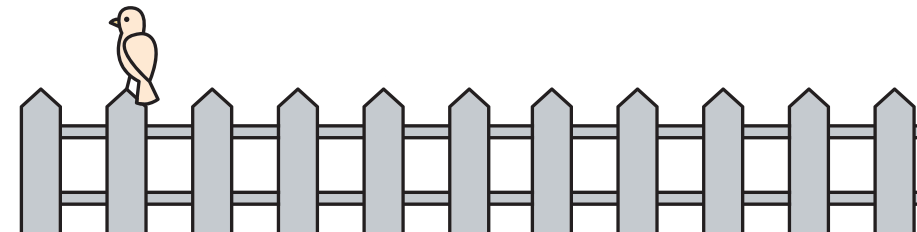


다함께 힘을 모아 불가능을 가능으로

빈엘지역아동센터 김윤영 장학생



센터에서 청소년들 부모님을 초대하는 장기자랑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몇 가지의 영역 연극을 준비해야 돼서 많이 촉박했습니다. 저는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아야 마음 먹었는데, 함께 연극을 준비한 장학생은 (김윤아 장학생) 청소년들의 가능성을 더 높게 생각하고 안 될 것 같은 것들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시도하고 청소년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며 연극을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불가능해 보였던 무대들이 가능하게 됐고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후 저도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이렇게 쉽게 제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고 그 한계를 정하지 않게끔 사고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서로 힘들 때 의지하고 힘이 될 수 있는 동료

온누리지역아동센터 이정민 장학생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으면서 학교 과제를 하고 있었는데 같은 수업을 듣던 동료 장학생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과목과 맞지 않라며 포기하려고 하는 걸 어떻게든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면서 저의 장학생이 되어주셨습니다. 퇴원후에도 매번 과제를 했다고 물어봐주시고 못했다고 하면 알려주시고 포기하려 하면 더 해보자 할 수 있다 해주시고 덕분에 그 과목의 성적은 기대했던 것 보다 잘 나와서 매우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원했다가 나오니 저를 센터갈 때마다 태워주시는 장학생이 있었습니다. 또 차에 치어서 날아갈까봐 하시며 농담 섞인 말을 하시곤 했지만 그 속에는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음에 매우 감사하게 얻어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매사에 열정적으로 하는 다른 샘들 덕에.. 방학 때 미라클 모닝을 하며 저는 각두기였지만 나태하지 않게 방학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물과도 같은 동료장학생

노원청소년센터 권세진 장학생



동료장학생들과 활동을 가기 전에 센터주변이나 학교주변에서 맛있는 저녁식사를 같이하고 센터에 갔던게 저한테 정말 재미있는 추억으로 남아있는 거 같아요! 서로 맛집을 공유하고 '이번주는 여기가자!'라고 했던게 소중한 추억이었던 거 같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같은학교에 좋은 선배, 친구를 만날 수 있어서 H-점프스쿨은 저에게 좋은 인연을 가져다주기도 한 선물같은 활동이에요!!

소중한 인연으로 다시 시작

해성지역아동센터 김나연 장학생



H-점프스쿨을 통해 친해진 동료 장학생들과 또 다른 대외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친해진 장학생들입니다. 공유할 수 있는 가치관으로 관계를 맺고, 가치관을 실현하고자 하는 희망으로 타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희망찬 미래를 향하는 동료 장학생들 모두 제게 큰 배움입니다.



한 명, 한 명 모두 소중한 관계

드림지역아동센터 박기봉 장학생



동료 장학생과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서 좋았고, 의지가 되고 배울 점도 많았습니다. 김대연 장학생은 항상 밝은 모습으로 학습센터 분위기를 띄워주었던 장학생이었습니다. 함께 활동했던 날이 많아 활동에서도,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저에게는 가장 의지가 되었던 장학생입니다. 최혜빈 장학생은 청소년들의 말에 귀를 잘 기울여주고, 정서적으로 가깝게 다가갔던 장학생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장학생이지만 함께 활동한 날이 많지 않은 것이 아쉽습니다. 광동윤 장학생은 청소년들에게 활기찬 모습으로 다가와 학습센터 내에서 인기가 많은 장학생이었습니다. 에너지 넘치는 모습에 동생이지만 의지가 많이 되었고, 청소년들에게 인기만점인 것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김다운 장학생은 특유의 씩씩함으로 장학생과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습센터 담당자님들과도 즐겁게 지냈던 장학생입니다. 불임성 있는 모습과 청소년들의 학습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모습에서 배운 점이 많았습니다. [H-점프스쿨]이 끝나고도 동료 장학생들과는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배움을 줄 수 있는 사이

드림지역아동센터 곽동윤 장학생

저는 동료장학생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은 케이스입니다. 동료장학생들 중 특히 대표장학생에게 많은 것을 배웠는데 매사에 긍정적인 태도, 사소한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늘 센터에 와서 항상 밝게 인사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항상 '그럴 수 있지~'를 달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대표장학생을 보면서 나는 센터에 방문할 때 뿐만 아니라 평소에 어떤 태도로 생활하는지 스스로 반성해볼 수 있었고 나도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동료장학생과 소중한 추억을 쌓았던 중간워크샵

그린리버지역아동센터 박서희 장학생

중간워크샵에 가서 전국의 다양한 장학생들을 만났을 때 소중한 추억을 많이 쌓은 것 같습니다. 평소에 행사나 멘토링에 참여하면 거의 서울 지역 장학생들을 만났었는데, 다양한 지역에서의 제 또래를 만난 건 거의 인생 첫 경험이었습니다. 룸메이트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하루만에 이렇게 친해질 수 있구나 생각하고, 다르게 생각하면 이제 만날 일이 거의 없을거라 속에 있는 이야기도 안 지 얼마 안 했는데 할 수 있는 것인가 생각이 들어 조금은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중간 워크샵에 가서 저녁에 닭강정과 과자를 먹으면서 자유 시간을 보내는 게 꼭 수련회에 온 것 같은 설렘이 있었습니다! 너무 소중한 추억이라 못 잊을 것 같습니다.

○○○ < > C Q H-점프스쿨은 나에게 []대 ↓ :

H-점프스쿨은 나에게 [거북이]다.

가온지역아동센터 박소현 장학생



H-점프스쿨 장학생으로 활동한 10개월을 돌아보면 동화 '토끼와 거북이' 속 거북이가 떠오릅니다. '토끼와 거북이'에서 느린 걸음으로 맘을 흘리며 경주에 입했던 거북이처럼 H-점프스쿨의 10개월은 저에게 매우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주 3회 지역아동센터에 방문하여 멘토링을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센터에 가기 위해서는 버스를 환승해야하는 번거로움도 있었고, 시험기간에는 센터 방문이 귀찮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느렸던 거북이가 동화 마지막에 승리하는 것처럼 10개월이 지난 지금, 수료를 앞두고 있는 제 자신이 부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H-점프스쿨 장학생으로 활동하는 동안 힘든 일도 많았지만 대학생할 중 가장 보람찬 일을 고르라면 당연히 H-점프스쿨이라고 말할 만큼 저에게 H-점프스쿨은 잊지 못할 너무나도 소중한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H-점프스쿨은 나에게 [튜브]다.

중계종합사회복지관 김연정 장학생



수영을 잘하지 못하는 저에게 바다나 수영장에서 튜브는 없으면 안 될 필수품입니다. 물속에서의 발길질, 손짓을 보조해주고 보호해주는 존재, H-점프스쿨은 저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어디까지도 가라앉으려 할 때, 저를 다시 일으켜주고 숨 쉴 수 있게 수면 위로 끌어주는 존재입니다. 저에게 2022년은 다소 버거웠던 해였습니다. 학교생활, 미래에 대한 고민, 그 외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아 힘들고 지쳐 포기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매주 방문하는 복지관과 복지관에서 만나는 청소년들, 동료 장학생들은 다시금 저를 일으켜주고 단단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또한 매주 H-점프스쿨에서 보내주시는 매일 속 응원 문구, 영상은 일주일의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H-점프스쿨이라는 튜브를 활용하여 수백, 수천 번의 발길질 끝에 수영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끊임없이 연습하여 결국 튜브 없이도 자유롭게 수영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수영하고 돌아와서는 제가 사용했던 그 튜브를 튜브가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 > C Q H-점프스쿨은 나에게 []대 ↓ :

H-점프스쿨은 나에게 [나침반]이다!

진주공부방지역아동센터 이리나 장학생



4학년에 되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H-점프스쿨을 만나게 되었고, 청소년과의 멘토링과 살롱 드 점프, 소그룹 멘토링 등을 통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H-점프스쿨은 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준 나침반입니다.



H-점프스쿨은 나에게 [처음으로 나 자신을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한 존재]이다!

반석지역아동센터 이한솔 장학생



자존감이 또래에 비해 낮았던 저는 처음 활동을 시작할 때도 내가 과연 누군가의 선생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일까 하는 제 자신의 능력에 대해 의심을 하던 버릇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1년을 돌아봤을 때 과연 이 활동이 나에게 가까스로 버텨온 활동으로 기억될지, 아니면 즐겁게 이끌어온 활동으로 기억될지에 대해 생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과 여러 차례 수업을 진행하면서 제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청소년들에게 더 좋은 선생님이 될지 노력하다보니 나중에는 청소년 친구들과 같이 성장해가고 있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벌써 마지막을 향해 달려오는 이 멘토링 활동은 제가 처음으로 나에게 고생했고, 나 자신이 정말 멋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느끼게 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 < > C Q H-점프스쿨은 나에게 []대 ↓ :

H-점프스쿨은 나에게 [새싹]이다!

뽕엘지역아동센터 황세웅 장학생



새싹은 어떤 꽃이 될지, 어떤 열매가 될지 모르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땅속에 있을 때와는 다르게 세상에 나와서 성장하기 시작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청소년 모두 이런 상태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사회에서 어떤 직업을 가질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H-점프스쿨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결정했고, 앞으로 성장해나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세상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바로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경험을 하는지에 따라서, 청소년들은 지금과 완전히 달라질 수도 똑같이 커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들과 함께 지내면서,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배웠고, 생각보다 행동하는 법을 배웠으며 그리고 청소년이 변화하는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앞으로의 삶에서 소중한 경험이고, 저를 많이 성장시켰습니다. 청소년들 또한 제가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줬었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청소년 둘 다 새싹이지만, H-점프스쿨을 통해서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H-점프스쿨은 새싹이었습니다.

H-점프스쿨은 나에게 [하늘]이다!

해피피지역아동센터 이재은 장학생



달고 싶지만, 손 뻗으면 멀어지는, 그러나 가까이 하고 싶은. 하늘은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H-점프스쿨 활동을 정말 잘해내고 싶지만, 닿을 수 없는 하늘처럼 모든 걸 잘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하늘을 바라보면 속이 후련해지고 마음이 따스해지는데요, H-점프스쿨 활동도 그래요. 때로는 어두운 하늘이, 비 내리는 하늘이 있는 것처럼 가끔은 속상하지만, 밝은 하늘을 항상 기대하듯이, 오늘은 또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놀이를 할까? 라는 마음에 길을 나설수 있도록 해줬던 활동이었습니다.

○○○ < > C Q H-점프스쿨은 나에게 []대 ↓ :

H-점프스쿨은 나에게 [미래로의 도약]이다!

착한지역아동센터 손예지 장학생



10개월간 '꾸준히' 목표를 향해 포기하지 않고 활동을 이행한 것, 청소년들과 교감하며 삶의 '배움'을 얻은 것, '노력과 결실'을 원동력으로 삼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 모든 것은 H-점프스쿨을 통한 미래로의 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알찬 미래를 위해 한층 성장할 수 있었고 과감히 발을 내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H-점프스쿨은 나에게 [2022년 전부]이다!

우리지역아동센터 장현지 장학생



저는 올해 제일 잘한 일이 H-점프스쿨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은 2022년 활동도 H-점프스쿨입니다. H-점프스쿨 덕분에 제가 멘토로서 아이들에게 지도할 수 있었고 아이들의 성장 뿐만 아니라 제 스스로 성장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또한 H-점프스쿨에서 하는 소그룹 멘토링, 살롱 드 점프, 워크샵을 다 참여하면서 소중한 멘토님들을 만날 수 있었고 잘 활용해서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H-점프스쿨을 통해, 저도 사회인 멘토님이 되어 사회의 선순환 구조를 이어나가고 싶다는 다짐도 또 하게 되었어요! H-점프스쿨 9기 장학생으로서 끝났지만 아직 끝난게 아니라는 점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다양한 지역의 친구들을 사귄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았어요. 특히나 H-점프스쿨에서 만나는 친구들과는 서로의 성장을 응원해주고 아낌없이 칭찬해 줄 수 있는 사이가 되었다는 점이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어디서 이런 멋진 친구들, 다양한 생각을 가진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요? 다 H-점프스쿨 덕분에입니다.

청소년 활동 수기

장학생에게 하고픈 이야기가 있다면?

사단법인경기글로벌센터

선생님의 관심과 도움 덕분에 제가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자소서 '자'자를 모르는 저를 가르쳐주고 결국 합격을 받아보기도 했죠. 저의 노력 또한 있었지만 노력만으로 불가능했던 것을 채워주셨어요. 이렇게 타인을 성장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선생님께서 못하시는게 무엇이 있겠어요. 저는 못하시는게 없다고 생각해요. 전에는 선생님께서 저를 응원해주시고 도와주셨다면 이제는 제가 선생님의 장래를 응원하고 도와주는 존재가 되고 싶어요. 지금까지 저의 자존감을 충전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올해 몇 안 남은 시간이 너무 아쉽고 내년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학생들과의 1시간은 추억 속에 오래 남을 거 같은 또 하나의 소중한 추억입니다.

중계종합사회복지관

선생님이란 같이 1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싫어하는 공부, 시험이지만,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그나마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편하고 재미있었고 내년에도 또 만나고 싶어요! 활동이 끝나도 계속 연락해도 되죠? 계속 연락하고 지내고 싶어요!
마해자 ENTP 언정쌤 사랑해요♥

하늘지역아동센터

선생님이 시험기간에 학생들의 성적 부담도 덜어주고 열심히 학생을 가르쳐 주면서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주셔서 이해하기 좋았어요. 그리고 학생들과 일상을 나누며 많은 소통을 해서 서로를 많이 알고, 학생들의 고민도 들어주며 상담해주는 선생님이라 좋았습니다.
저희 없이 잘 지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잘 지내세요. 그리고 공부 조금하고 게임 좀 해서 같이 하는 날이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성공하셔서 저희를 잊지 말아주세요.

그린리버지역아동센터

선생님과의 영어수업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영어라는 단어가 어렵지만 했는데도 선생님을 만나서 저에게 영어가 재미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희랑 공부해줘서 고마워요! 저희가 말도 안듣는데 화도 안내시고.. 정말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수업 많이 빠져서 보충 수업 해주시느라 고생많이하셨는데 죄송합니다. 남은 기간도 저희 열심히 해봐요! 파이팅.

공립벨엘지역아동센터

선생님 1년동안 정말 감사했고 인연이 된다면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광지역아동센터

선생님 항상 따뜻하게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진로를 엄청 고민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열심히 도와주셔서 제가 하고 싶은 꿈을 찾은 것 같아요. 항상 너무 감사하고 사랑해요!!

오에스지역아동센터

항상 영어를 잘 못 풀어서 많이 틀렸을 때마다 화내지 않고, 설명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설명하실 때도 이해가 한 번에 잘 되도록 해주셔서 영어를 더 잘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동안 수업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고민있으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젤 기억에 남는 거는 여름에 선생님 머리에 트윙클 헤어 피스톤 헤드리고 같이 사진도 찍고 가을에 센터에서도 같이 놀러가고 항상 무슨 날이면 항상 먼저 연락주시고,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해요. 다른쌤들 같은 경우에는 '기승전' 공부했는데 해리쌤은 놀 때는 놀고, 공부할 때는 공부해서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 열심히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영어 시험볼 때도 아는 문장이 많이 나와서 좋았어요!

가온지역아동센터

1년 동안 여러가지 경험을 하게해주셔서 감사하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선생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H-점프스쿨 끝나고도 우리 아는 사이로 지내요!! 내년엔 여행 가셔도 저희 잊지 마세요!

시간이 정말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저랑 유나와 함께 수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업 시간에 쓸데없는 말을 해도 재미있고 진지하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사랑해요!

벨엘지역아동센터

말을 잘 안들은 적이 많은데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깨비지역아동센터

안녕히 잘 가세요. 감사했습니다. 마라탕 사주세요. 영어랑 수학을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달팽이지역아동센터

가지마요... 멘토 100회하고 마지막 날에 같이 냉면, 마라탕, 치킨 먹어요

해피업지역아동센터

항상 웃으면서 가르쳐주시고 시험이 망해도 다음에 더 잘하면 된다고 위로해주신 장학생들, 정말 감사하고 게임할때보다 장학생들하고 있었을 때가 더 즐거웠어요!!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도 절대 까먹지 않고 꼭 대학교에 찾아갈게요!! 1년동안 재밌고 정확하게 잘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내년에 또 왔으면 좋겠어요.

재반지역아동센터

다른 곳에 가서도 장학일을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좋은 선생님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꼭 화이트 해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연애 파이팅!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대회 나갔을 때 응원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공부도 운동도 열심히 하고 노력해볼게요.

다사랑아동복지센터

선생님 사랑해요!
앞으로 더 많이 놀고 싶어요. 마지막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명륜지역아동센터

선생님 덕분에 많은 추억 쌓고 가요. 1년 동안 선생님과 멘토링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었어요. 몇 번 만남은 멘토링 수업이지만 같이 재밌게 마무리해요. 그동안 저에게 많은 웃음과 기쁨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동안 너무 즐거웠어요. 선생님 잊지 않을게요!

명정지역아동센터

일 년 동안 공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계느티나무지역아동센터

선생님과 함께 10개월 동안 수업 할 수 있어 정말 좋았어요~ 선생님께서 항상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잘 할 수 있다고 격려 해주셔서 자존감도 올라가고 문제에 대한 자신감도 많이 생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같은 좋은 선생님 만나서 수업이 정말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었어요 정말 감사했고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만나요~!! 저 잊지말아요~

10개월동안 잘 가르쳐 주셔서 성적 올리는 것에 도움이 되어 감사합니다.

착한지역아동센터

장학생에게 하고 싶은 말은 얼마 안남었지만 남은 시간도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만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디딤돌지역아동센터

너무 감사했습니다 진짜 선생님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선생님 수업 끝나고도 만나요, 함께 수업을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Part 4

학습센터에 전하는 감사 한마디

배려와 존중 그리고 따뜻함으로 해주신 학습센터 선생님들께 전하는
장학생들의 솔직한 속마음을 들어보아요.



그린리버지역아동센터 최준영 장학생

복지사 선생님, 센터장 선생님, 항상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맛있는 밥과 간식을 챙겨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단순한 봉사자가 아니라 진정성 있게 생각해주시고 따뜻하게 응원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분들을 만나 활동을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 ^)

보라매지역아동센터 김영준 장학생

그동안 저희 장학생들의 불규칙한 일정에도 청소년들의 학습 일정 잘 조율해주시고, 장학생 분들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시는 것이 한 눈에 보였습니다. 비록 저는 이번년도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하지만, 센터의 청소년 및 장학생 분들께 성심성의껏 해주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지역아동센터 박소연 장학생

학습센터 선생님들께서 장학생들을 정말 많이 생각해주시고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10개월동안 제가 잘 전달하지 못한 것들도 많았지만 이해해주시고 아이들과 있으면서 힘들었던 점들을 선생님께서 먼저 알아주시고 말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사랑속의아이들지역아동센터 최준형 장학생

우선 많이 부족했는데 끝까지 믿고 맡겨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거의 1년 가까이 매주 뵈고 아이들을 가르쳐 왔는데 막상 활동이 끝난다고 생각하니 시원섭섭하고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힘든 것이 없는지 물어봐 주시고 간식이나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항상 챙겨 주셔서 더 힘내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배우고 가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목공예 체험 등과 같은 활동들은 아이들뿐 아니라 저에게도 정말 큰 경험이었고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나중에 23살을 떠올려 봤을 때 교육봉사 활동이 가장 먼저 떠올라 줘서 감사했습니다.

공립뽕밭지역아동센터 성지윤 장학생

제 멘토링 시간이 멘티에게 좋은 효과가 나도록, 200%이상의 여건을 만들어주셨습니다. 학습센터 청소년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에서, 또 저희도 그 청소년들을 사랑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건들을 제공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지역센터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멘토링을 시작했는데, 센터 선생님들 덕분에 얻어간 것이 많았습니다. 이 센터를 선택하기 참 잘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행복나무지역아동센터 서영현 장학생

저는 행복나무 지역아동센터가 단연 최고의 지역아동센터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친구들의 진로, 학업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선생님들의 무한한 관심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0개월 동안 그 구성원으로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면서 보람찬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또 선생님들께서 장학생들에 대해 항상 배려해주고 멘토링 활동에 대한 존중에 다시 한 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제 인연이 되어 다시 만났을 때,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누리지역아동센터 김은설 장학생

10개월간 장학생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친근하게 다가와 안부를 물어주셨던 원장 선생님, 많은 아이들과 센터를 관리하면서도 힘든 내색 하나 없이 묵묵하고 든든하게 이끌어주신 지혜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오래오래 건강하고 또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 *

가온지역아동센터 박소현 장학생

가온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께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매 수업마다 청소년과 함께 수업 중에 먹을 간식과 음료를 챙겨주셔서 더욱 힘내서 수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챙겨주신 카레로 멘토링이 끝나고 집에서 맛있는 저녁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학기 중에 시험 등으로 인해 일정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장학생을 항상 배려해주시고,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마음이 가득한 센터에서 H-점프스쿨 장학생으로 활동할 수 있어 더욱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여개동무지역아동센터 이소예 장학생

온기가 가득했던 반여개동무지역아동센터에서 함께할 수 있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항상 아이들을 우선으로 생각해주는 센터 선생님들의 마음에 많이 배우고, 감명받았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에너지의 원천은 센터 선생님들의 청소년들을 향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10개월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진주공부방지역아동센터 이리나 장학생

학습센터에 방문할 때 마다 항상 따뜻하게 맞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반겨주시고 응원해주신 덕분에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활동할 수 있었고 무사히 멘토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모여라지역아동센터 박정빈 장학생

늘 편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수업 진행할 때 필요한 건 없는지 확인해 주셔서 1년동안 아이들과 소조롭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기간을 먼저 물어봐주시는 등 현재 제가 대학생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배려도 꼼꼼히 해주셔서 저는 1년동안 행복하게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저도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기울이고 더 잘해주려고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화지역아동센터 박창준 장학생

근화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 처음 갔을 때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처음이라 수업을 하거나 멘토링 활동들을 할 때 미숙한 점이 많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잘 알려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활동시간을 유동적으로 맞춰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활동 끝날 때 이것 저것 많이 챙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공릉종합사회복지관 김수린 장학생

이렇게 10개월 간 장기적으로 했던 봉사 활동은 처음이라서 그 기간 동안 미숙했던 점도 많고, 부족했던 점도 많았는데 항상 격려해주시고 먼저 도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공릉종합사회복지관 다들 교실에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학습센터에서 학생들, 선생님들과 함께 푸릇한 봄,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추운 겨울까지 함께 보내며 아름다운 기억을 만들 수 있었고 또 순수한 사랑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거의 끝나가는 무렵이지만 저의 자리에서 학습센터를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선생님들, 직원분들, 그리고 학생들 모두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

명륜지역아동센터 이종혁 장학생

9기 장학생으로 활동하고자 많은 분이 지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1년간 장학생으로써 활동할 수 있게 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저보다 뛰어난분들이 지원자들보다 저를 좀 더 좋게 봐주셔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고,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활동 중에도 주기적으로 애로사항을 확인해주시며 많은 편의를 봐주시는 등 청소년들에게 최적 수업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학습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구립한내지혜의숲지역아동센터 이미혜 장학생

학기 중에 진행되는 활동이라 시험이나 과제, 교수님 면담 등의 일정이 생겨 활동 시간 변동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입장을 고려해주시고 배려해주시는 덕분에 10개월의 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센터 활동이 끝나고 시간이 지나 2022년을 떠올렸을 때 구립한내지혜의숲이 가장 먼저 떠오를 정도로 정말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활동이 끝나 센터를 떠난 뒤에 센터를 많이 그리워할 것 같습니다. 10개월 동안 감사했습니다!



깨비지역아동센터 박경준 장학생

센터에서 항상 배려해주시고 편안한 근무 환경을 만들어주셔서 약 1년 동안 큰 어려움 없이 멘토링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고, 청소년들을 생각하는 마음에 크게 감명 받았습니다. 다음 10기 활동 때에도 우리 센터가 훌륭한 장학생들을 만나 선생님들의 노고를 덜어주고, 아이들도 최적의 학습환경을 제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반석지역아동센터 이나겸 장학생

제가 많이 서툴렀지만, 물적과 심적 양면으로 지원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1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덕분에 행복한 시간들로 가득채울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을 잘 지도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학습센터 담당자 분들 모두 저처럼 अच्छ고 행복한 한해 보내셨으면 좋겠고, 내년에 새로운 장학생분들과 함께 행복한 나날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을지역아동센터 이진영 장학생

센터장님,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장학생들의 편의를 많이 봐주신 것 같습니다. 업무에도 열중하시면서 청소년들을 챙기는 모습에 본받을 점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장학생을 10개월만 하다 가는 대학생이 아닌 정말 선생님으로서 존중해 주셨고 어릴 땐 아들, 딸처럼 챙겨주셨습니다. 정말 잊지 못할 센터장님과 사회복지사 선생님입니다. 감사합니다!

푸른희망지역아동센터 박정인 장학생

활동을 진행해나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때 언제든지 들어주시려고 노력해주시고, 언제나 잘 챙겨주시려고 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학습센터의 선생님들이 없었다면 H-점프스쿨 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을까요? 선생님들과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지혜와 경험을 얻고갈 수 있어서 참 유익하고 행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했습니다!

라온지역아동센터 손수영 장학생

항상 멘토링이 끝나고 센터를 나올 때 마다 수고하셨다고 인사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미숙하거나 부족했던 부분도 분명 있었을 텐데 저희를 응원해주시고 든든하게 있어주셔서 10개월 동안 큰 어려움 없이 활동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Part 5

10기 후배 장학생에게 당부하는 말

10개월의 긴 멘토링을 통해 우리 장학생은 어떤 걸 느끼고 배웠을까요?
또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을까요?
10명의 장학생이 진솔하게 풀어낸 속마음 인터뷰로, 만나볼게요!



H-점프스쿨 의무로 받아들이지 말고 즐기자!

청보리지역아동센터 김환선 장학생

아마 지금 나이대에 청소년들과 이렇게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H-점프스쿨 활동을 하며 많은 청소년들을 접하게 됩니다. 생각외로, 청소년들에게 배우는 점도 많고 얻어가는 점도 엄청 많습니다. 가끔은 때묻지 않은 순수한 아이들이 제시한 방법이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H-점프스쿨 활동을 하며 주 2~3회 꾸준히 센터에 방문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시험기간이 다가온다면 더욱 힘들 것입니다. 센터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초롱초롱한 아이들의 눈이 다 저를 봅니다. 그 순간 그 고단했던 하루의 피로가 다 녹아내릴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힘을 냈던 것 같습니다. 활동을 하며, 아이들의 눈망울을 꼭 보셨으면 합니다. 제일 해주고 싶은 말은 '의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상황을 즐겼으면 합니다. 의무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의욕도 잃어가고 H-점프스쿨 활동에 단점만 보려고 할 것입니다.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는 말처럼 모든 상황을 즐겼으면 합니다. H-점프스쿨 10기 장학생 활동도 파이팅입니다.



적극적인 프로그램 참여로 네트워킹 형성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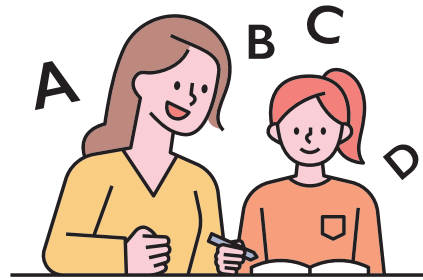
사랑받는지역아동센터 신유화 장학생

우리의 미래 10기 장학생분들! 제발 이것만은 꼭 얻어가세요!! 바로 다양한 소그룹 멘토링!! 이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주제로 상시 개설되고 있고 소그룹으로 진행되는 특성상 정말 집중적인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다른 곳에서 현직자 분을 모셔오려고 해도 돈도 많이 들것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H-점프스쿨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은 모두 현직자로서 저희들에게 직접 많은 이야기를 해주신답니다. 저는 '해외취업', '심리상담사'와 관련된 멘토링을 들었는데 좀 더 많이 들을 걸...이라는 아쉬움이 뼈속까지 남아있답니다... 그러니까 다들 소그룹 멘토링 관심있는 주제라면 최대한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소그룹 멘토링 외에도 H-점프스쿨에서 진행되는 각종 프로그램을 원만하면 모두 참여하면 좋겠어요. 저는 H-점프스쿨을 하면서 몸과 마음이 힘들 때마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동료 장학생들이 전국 어디에든 있다고 생각하며 버텼어요. 실제로 장학생 네트워킹 기회를 통해 힘든 점을 공유하고 꿀팁들을 알아가는 순간을 통해 같은 H-점프스쿨 장학생이라는 소속감을 엄청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소속감을 느끼는 순간부터는 센터에 와서도 좀 더 힘을 내서 일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H-점프스쿨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행사에도 많이 참여해서 얻어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그룹 멘토링 참여로 시야를 넓혀보세요!

평화지역아동센터 송시연 장학생

저는 사회인 멘토링이 가장 유익했습니다. 청소년들과 보내는 시간 속에서도 긍정적인 생각들을 얻어갈 수 있지만, 이를 바탕으로 사회인 멘토링이나 1:1 멘토링에 참여하면 목표에 대해 실질적인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멘토님들의 다양한 경험 속에서 새로운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거나 혹은 자신이 관심있는 분야를 더 깊게 알아가며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책임감, 살롱드점프, 인적 네트워크

달서구본동중합사회복지관 강예은

9기 장학생을 하면서 얻은 게 너무나도 많지만 책임감, 살롱드점프, 인적 네트워크 모두 꼭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0개월 간 활동을 하면서 책임감을 얻을 수 있었고 살롱드점프를 통해 직접적으로 맞는 진로가 아니더라도 좋은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북대학교 다른 과 장학생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의 장학생들, 그리고 학습센터와도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의 새로운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공릉종합사회복지관 김수린 장학생

지속적이고 꾸준한 소통을 통해서 얻는 기쁨, 희망! 그리고 다양한 멘토링 활동! 10개월의 활동이 결코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동안 청소년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다보면 저처럼 자신의 욕심,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사랑 없는 모습을, 말과 행동이 달라서 고통 받는 자신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제 모습을 새롭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 H-점프스쿨 지원하지 않았다면 숨겨진 이러한 제 모습을 알 수 없었겠죠? 그리고 소그룹 멘토링이나 살롱드 점프를 통해서 저희도 멘토가 있고 그들에게 충분히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진로나 살면서 겪는 다양한 고민, 시도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멘토를 통해 배우고 경험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롱드 점프 때 만난 인연을 통해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며 서로에게 응원해주고 고민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단체생활, 나의 불편한 편견 없애기

삼척반석지역아동센터 이유진 장학생

꼭 10기에 붙어서서 H-점프스쿨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멘토링에 참여하고 새로운 세계를 맛보셨으면 합니다. 또 다른 장학생들과 함께 활동하며 협력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알아가셨으면 해요. 저는 늘 혼자가 편했던 사람이라 단체활동은 불편하다고만 여겼는데 H-점프스쿨을 통해 제 편견을 깰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생활들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법’을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척지역아동센터 이다혜 장학생

학습센터에 상주하시는 선생님들께도 청소년들이 사랑을 받겠지만 그 이외에 외부의 성인들에게는 사랑받을 기회가 적습니다. 막 성인이 된 장학생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외부의 성인들에 해당하며 또한 진정한 성인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청소년들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청소년들이 장학생들에 사랑을 표현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 주변 친구, 가족들에게도 이어질 것입니다. 멘토링 활동 안에서 그동안 비대면 활동으로 인해 서먹한 인간관계를 깨고 많은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사랑을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을 믿어봐주십시오!

온누리지역아동센터 김준영 장학생

네 안녕하세요 10기 장학생 여러분. 현대차그룹 대학생 교육봉사단 H-점프스쿨 9기 장학생 김준영입니다. 10기 장학생이 되신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장학생 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당부드립니다. H-점프스쿨의 소그룹멘토링, 살롱 드 점프, 중간 워크샵, 일대일 멘토링을 꼭 참석하십시오. 그냥 제말만 믿고 참석하십시오. 절대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뭐라도 얻어갈 수 있습니다. 정말 제가 다른 대외활동들도 여럿 해보았지만 정말 비교가 안되는 퀄리티입니다. 대학생생활하면서 이런 경험하기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사무국에서 안내하는 활동을 다 참가하세요. 그리고 정말 인생의 황금같은 시기인 대학생생활을 그냥 흘려보내시지 마시고 많은 경험과 인생선배들의 노하우들을 얻어주세요. 후회할일없습니다.

학습센터 동료장학생과 먼저 친해지기!

명보지역아동센터 이재환

같은 센터 장학생들끼리 빨리 친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처음 1학기는 어색해서 센터 관련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못했어요. 중간 워크샵 이후에 다들 친해져서 같이 밥도 먹고, 소그룹 멘토링도 신청하고 학교 이야기도 많이 했답니다.
H-점프스쿨을 하면서 얻어가는 것 중에 좋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빠르게 친해지고 활동 관련해서 다같이 참여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청소년의 속도를 존중하면서 가까워져봐요!

청소년센터두드림지역아동센터 문다희

청소년들과 처음부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친해지는 것은 어렵지만, 청소년들이 가진 속도에 맞추어 귀 기울이고 노력한다면 청소년들과 부쩍 가까워져 있을 거예요!
청소년들과의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 H-점프스쿨에서만 느낄 수 있는 나의 특별한 성장과 경험을 얻어갔으면 좋겠어요. 10기 장학생분들에게도 내 인생에서 가치 있는 1년이 되리라 확신해요.

HYUNDAI | **H-JUMP SCHOOL** 현대차그룹
MOTOR GROUP 대학생 교육봉사단

 **HYUNDAI**  **KNU**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대구광역시서구청

 부산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인하대학교 **JUMP**  사랑의열매